



배포 일시	2022. 12. 15.(수)		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 정진훈 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 배기훈 (044-201-3338)
		담당자	사무관 최준녕 (044-201-3339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전세사기 근절 ·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
-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(12.15) 관련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, 경찰청·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‘전세사기 특별단속’을 실시하고 있으며,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(8.24)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.
 -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, 특별단속 4개월(7.25~11.27)간 349건을 적발, 804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.
 - * 전년대비 월평균 검거인원이 6.7배 증가 ('21년 30명 → '22년 200명)
- 또한, 현재 전국 391건·1,261명을 수사 중이며,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·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.

- 또한,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에 설치된 ‘전세피해 지원센터’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.
 - 한편,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.
 -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하여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,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·협의를 계획이다.
 - 아울러,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,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, 임시거처 제공* 등을 통해 적극지원할 예정이다.
- * HUG 강제관리 주택 또는 LH 등 임대주택 활용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법무부·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, 전세사기 근절과 신속한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	정진훈 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	배기훈 (044-201-3338)
		담당자	사무관	최준녕 (044-201-3339)
	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지원팀	책임자	팀 장	박동주 (044-201-3321)
		담당자	사무관	김애리 (044-201-3314)
		담당자	사무관	장은석 (044-201-4150)
	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중기 (044-201-4530)
		담당자	사무관	이미래 (044-201-4479)
	토지정책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	책임자	단 장	김성호 (044-201-3434)
		담당자	사무관	허예원 (044-201-3595)
	법무부 법무심의관실	책임자	법무심의관	정재민 (02-2110-3164)
		담당자	서기관	임성택 (02-2110-3503)
	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	책임자	총 경	김종민 (02-3150-2037)
		담당자	경 정	김현수 (02-3150-2468)

